

2022. 4. 1(금)

운송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RA 오정하

02. 6454-48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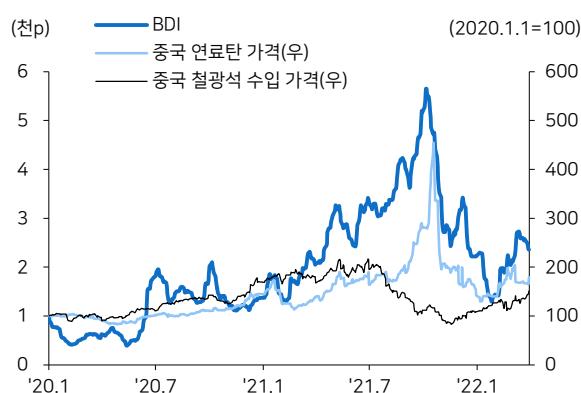
2022. 4. 1(금)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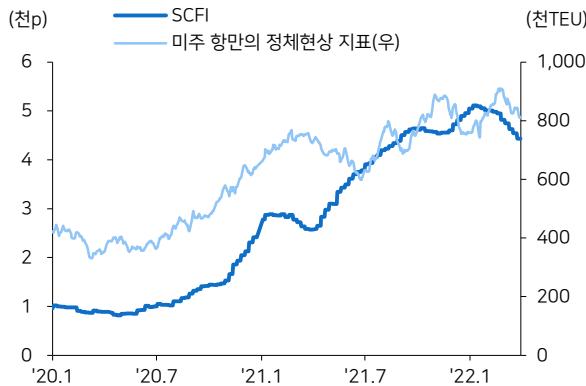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358.0p(-11.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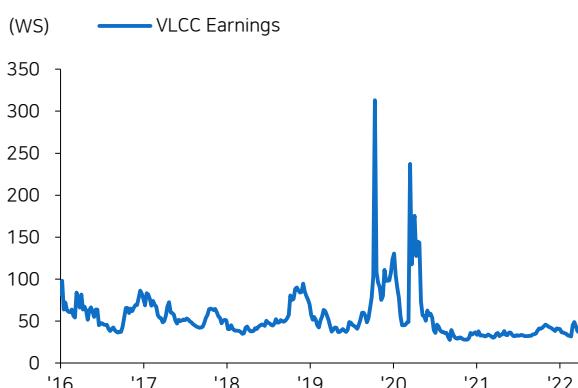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434.1(-106.2p WoW)



VLCC Spot Rate

36.5(-1.2p WoW)



LNG Spot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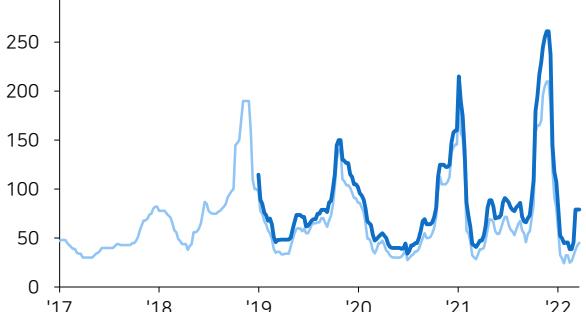
45.3p(+2.8p WoW)

79.3p(+0.0p WoW)

(천달러/일)

LNG 160K CB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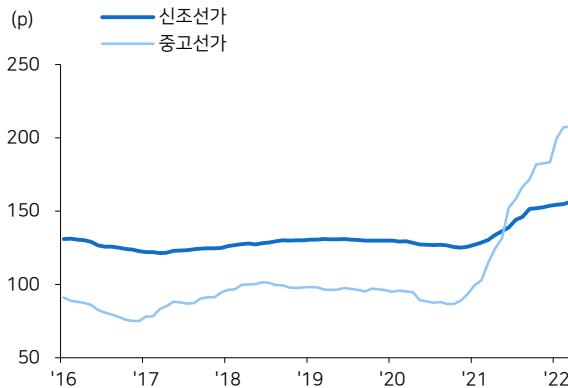
LNG 174K CBM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6.6p(+0.5p WoW)

207.6p(+0.0p WoW)



항공시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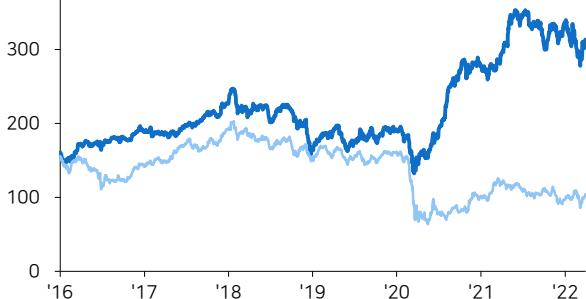
302.3p(-6.9p DoD)

104.0p(-0.2p DoD)

(p)

MSCI 항공화물 index

MSCI 여객 Index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여름 인천공항 항공편 코로나 이전 절반 수준까지 회복 예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 여름에는 인천국제공항 항공편이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됨. 오는 7월 일일항공편수를 국적사 332편, 외항사 194편으로 총 516편으로 추정함. 4월 항공편 수보다 2.75배 증가, COVID-19 대유행 이전 대비 절반 수준임. 공사의 이번 항공실적 전망은 국적사 운항계획 조사 결과와 5~7월 외항사 스케줄을 추정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함. (에어진)

미국, 6개월간 일평균 100만 배럴 전략비축유 방출…사상 최대

미국이 유가를 잡기 위해 향후 6개월간 미국의 전략비축유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일일 평균 100만배럴의 석유를 방출한다고 보도됨. 이 조치를 동맹 및 파트너들과 조율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동참해 동맹국에서는 3,000-5,000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 방출 할 수 있다고 덧붙임. (뉴스1)

카타르, 러시아 대안으로 급부상..한발 물러선 푸틴

카타르가 러시아를 대신할 유럽의 새 가스 공급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됨. 이미 장기 에너지협정을 체결한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이 카타르와 LNG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짐. 카타르는 현재 287억달러를 투자해 가스 생산량을 40% 확대할 계획인데, 투자가 완료되면 2026년 카타르의 연간 가스 생산량은 3,300만톤으로 확대돼 유럽 가스수요를 충분히 감당 할 수 있다고 보도됨. 한편, 유럽은 카타르 외에도 미국, 양골라, 알제리, 리비아 등과 가스 구매 협상을 진행 중임. (아시아경제)

미국, '러시아산 원유 수입' 인도에 "레드라인 설정 안해"

미국이 서방에 압박에도 러시아산 원유수입을 강행하고 있는 인도에 대해 어떤 레드라인도 설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됨. 대러 포위망 구축, 중국 견제 등 여러 분야에서 인도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 '인도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함. 그러나 러시아와의 급격한 교역확대는 자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후 인도가 수입한 러시아산 원유는 최소 1,300만배럴에 달한다고 알려짐. (연합뉴스)

위치 추적 따돌리는 러시아 유조선들..."원유 암거래 의혹"

러시아 유조선들이 서방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시장에서 원유 판매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됨. 해양산업 정보회사 윈드워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러시아 유조선의 추적시스템에서 몇 시간씩 꺼져있는 '암흑활동'이 전쟁 전 대비 600% 증가했다고 알려짐. 19일 기준 암흑활동이 지난 12개월 주간 평균대비 236% 증가했다고 보도됨.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이자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인 중국과 인도의 정유 공장이 고객일 것으로 추정함. (조선biz)

MPC Container Ships grasps 'extraordinary opportunity' to ink first newbuild order

MPCC가 HJ중공업에 5,500TEU급 광폭선체(wide-beam) 컨테이너선 2척을 발주했다고 보도됨. 총 1.44억달러규모이며, 2024년초 인도될 예정임. (Tradewinds)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